



베어백호 이젠 득점력 높이기

2~3명씩 문전 쇄도 골 결정력 훈련

2007 아시안컵축구 우승을 목표로 점차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는 베어백호가 수비집중을 마치고 득점력 강화쪽으로 훈련의 초점을 변화시키고 있다.

축구대표팀 소집훈련 나흘째인 26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강창학구장에서 23명의 태극전사 가운데 22명이 린 베어백 감독의 지도 아래 러닝으로 가볍게 몸을 풀었다.

이동국(미들즈브러)이 무릎 통증 재발로 정밀 진단을 받기 위해 오전 훈련에서 제외됐고 조재진(시미즈)과 김정우(나고야)는 가벼운 부상으로 암산 고트비 코치와 함께 재활 훈련을 계속했다.

24°C 기온에 습도가 71%에 달하는 습한 날씨 속에 베어백 감독은 일단 7-8명씩 한 팀을 이뤄 손으로 볼 뺏기로 적응 훈련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좌우 측면에서 왕백이 크로스를 올리면 나머지 선수들은 2~3명씩 문전으로 쇄도하며 골 결정력을 끌어올리는 훈련이 이어졌다.

최적의 포백(4-back)조합을 찾기 위한 수비 대안 마련에 몰두한 지 4일 만에 이날 처음으로 공격력 강화에 들어간 것이다.

베어백 감독은 훈련 내내 공격수 또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골망을 출렁일 때마다 '나이스'나 '베리 굿'을 연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김치우(전남)는 김동진(제니트)과 송중국(수원)은 오범석(포항)과 각각 짝을 이뤄 좌우 측면에서 활발한 오버래핑을 선보였고 중원을 맡은 오장은(울산)과 이호(제니트), 김상식(전남) 등은 간혹 중거리 슈트를 날렸다.

베어백 감독은 공격수 최성국(성남)과 염기훈(전북), 우성용(울산)이 잇따라 골을 넣자 흡족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26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창학구장에서 한국 축구대표팀 김상식, 이호, 이천수 등이 손으로 볼을 빼앗는 훈련을 하며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U-20 월드컵 2007' 내달 1일 개막...한국팀 각오

“죽음의 조 넘어 4강 간다”

미국, 브라질, 폴란드와 '죽음의 조' D조에 든 한국은 다음달 1일 오전 6시 몬트리올에서 미국과 조별리그 1차전을 시작으로 4일 브라질, 7일 폴란드와 차례로 맞붙는다.

4개국씩 6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 2위 12개 팀을 비롯해 3위 팀 중 성적 좋은 4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오른다. '미니 월드컵'으로 불리는 이 대회에서 한국은 2003년부터 3회 연속(총 10회) 본선 무대를 밟는다.

목표는 1983년 멕시코 대회에서 거둔 4강 성적을 24년 만에 재현하는 것이다. 당시 박종환 감독이 이끈 한국은 멕시코, 호주, 우루과이를 연파하고 4강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브라질에 1-2로 석패했지만 세계 축구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 17일 출륙해 토론토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해 온 한국은 조별리그 세 경기를 치르는 몬트리올로 27일 이동, 미국과 첫 경기 준비에 들어간다.

▲역대 최강?--이번에는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이 U-20 월드컵에 출전할 때마다 역대 최강 멤버라는 소리를 들었다. 최근만 하더라도 1999년 이봉국을 비롯해 2003년 최성국과 정조국, 2005년 박주영 등 '한국 축구'의 미래로 일컬어지던 기대주들이 태극 마크를 달았다.

20세 이하(U-20)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세계 4강 신화 재현에 나선다. 예비 스타의 산실인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2007 대회가 한국을 비롯한 2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다음달 1일(이하 한국시간)부터 23일간 캐나다 6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패기·노련미 갖춰 미국전 승리 자신

이번 대표팀에는 예전에 비하면 절충한 스타가 없다.

월드컵 지역예선을 겸해 지난해 11월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청소년(U-19)선수권대회에서는 3회 연속 대회 우승 목표 달성에 실패하며 3위로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

하지만 '조동현호'도 역대 최강이라 부르게 전혀 손색없다는 평가다. 몇몇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전 선수들이 고른 기량을 갖춘 팀이라 무섭다.

FIFA에 제출한 21명의 최종 엔트리에는 프로 소속 선수가 15명이나 된다. 16강에 올랐던 2003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회 때와 함께 역대 최다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 소속 선수들이 대부분 현재 소속팀에서도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 기량은 물론 경기 운영 능력과 경험 면에서 결코 역대 어느 대표팀 못지 않다.

FIFA가 출전국 프로필에서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로 소개한 지난해 아시아선수권 득점왕(5골) 심영성(제주)은 벌써 프로 4년차로 올 시즌에는 16경기에 출전, 3골1도움을 올렸다.

공격수 하대균(수원)도 정당한 선배들을 제치고 올 시즌 12경기에 나서 역시 3골1도움을 기록했다. 이청용과 송진형, 김동석, 기성용 등 FC서울의 미드필더 4인방은 구단에서 "뽕뽕 데려가면 우리 어떻게 경기하느냐"고 불만을 표시를 냈을 만큼 팀에서 꾸준히 활약해 온 선수들이다.

이 밖에도 울산의 멀티플레이어 이상호를 비롯해 전부의 이현승과 최철순, 그리고 2회 연속 U-20 월드컵 무대에 나서는 신영록(수원)과 박종진(제프 지바) 등 패기에 노련미까지 더해진 선수들이 즐비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조선대 서호철 역도 2관왕

서호철(조선대)이 제79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서호철은 26일 고양시에서 열린 남자대학부 69kg급 인상에서 131kg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합계에서도 286kg으로 역시 금메달을 따냈다. 또한 김경식(조선대)은 105kg급 인상 인상에서 150kg을 들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경화(광주은행)는 남자일반부 62kg급 인상 120kg, 합계 261kg으로 각각 은메달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벨인퍼컴 실업볼링 '금'

이나영·윤희여·손연희(이상 광주벨인퍼컴)가 2007 세정인 디엔배 전국실업볼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나영·윤희여·손연희조는 최근 부산 대연 볼링경기장에서 열린 여자부 3인조전에서 함께 4천110점을 기록해 경복체육회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벨인퍼컴 여자볼링팀은 최근 각종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우승을 하는 등 전국최강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어 올 10월에 열린 광주전국체전 종합우승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체육중 권교훈·장현우 '금'

권교훈(광주체육중)은 제35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권교훈은 그레코로만형 85kg급 결승에서 강원중 이해성을 2대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현우(광주체육중)도 그레코로만형 54kg급 결승에서 강원중 김대용을 2대1로 제압하고 역시 금메달을 따냈다. 박상혁(광주체육중)은 그레코로만형 46kg급 결승에서 충주 중앙중의 정대석에게 0대2로 패해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여고 공기소총 단체 '은'

전남여고가 제37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김찬미·홍경현·백정진·맹미진(이상 전남여고)은 25일 창원에서 열린 여고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1천176점을 명중시켜 구경고(1천176점)와 타이틀을 이뤘으나 1·2위가 동점일 경우 4라운드 기록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 구경고등학교에 1점 뒤져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또 김찬미(전남여고)는 여고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498점을 쏘아 1위 김상화(천안여고)에 0.1점이 뒤져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서구청 강영미 펜싱 '동'

강영미(광주 서구청)가 제12회 감항함배 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강영미는 26일 태백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에페 준결승에서 경기도체육회 이명희에게 10-14로 패해 동메달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7일(수)
▲제61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속초상고-마산고)(10:00), <중앙고-동산고>(13:00-KB-SN Sports)
▲당진장사씨름 대회 백마장사(14:10-KBS1)
▲프로야구(두산-삼성)(17:40-KBSN Sports), <한화-KIA>(18:20-SBS스포츠), <SK-롯데>(18:30-MBC ESPN)



페더러 2회전 진출 로저 페더러가 26일 영국 윔블던 올 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윔블던테니스 남자 1회전 러시아의 테이무라즈 가비쉬빌리와 경기에서 발리 샷을 한후 중심을 잃고 있다. /AP=연합뉴스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갈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공간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필름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갈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 (062)262-0101

원내감염예방 선두기업-다물바이오텍

감염예방기기 렌탈사업개시!

1년에 한번쯤 귀중한 내집의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는 기회가 왔습니다.

세계 WTO, FDA, EPA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증된 제품으로 구석구석 세균을 확실하게 살균·소취합니다.

방안이력 귀하의 사업장이 깨끗해 집니다.

렌탈 대어가격

1일(24시간)사용시 20-30평(실평수) - 25,000원 30-40평(실평수) - 35,000원

★병원, 신후조리원 무료로 렌탈해드립니다.(4일간) ※안정화 이산화염소의 성능은 세균과 냄새를 동시에 제거합니다.

(주)다물바이오텍 전남·북총판 [062] 531-2811 011-9616-5258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51-17

●이산화염소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인증

기관	인정내용
JFCFA (유엔식물검역 전문위원회)	ADI(잔류허용농약) A 클래스 인증
FDA (미국 식품의약국)	식품첨가물, 의료용소독, 의료기기소독 사용허가
EPA (미국 환경보호청)	음료수, 환경정화, 공기정화기 필터 사용허가
USDA (미국 농무부)	식품, 식육소독 사용허가
FSIS (미국 식품안전국)	식품, 식육소독 사용허가
NASA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왕복선내부 및 우주선의 완전결균에 채용
HACCP (식품위생안전관리제도)	식품위생 안전관리용 소독소독에 공식 채용
EFSA (유럽식품안전국)	음용수의 소독, 식품첨가물
MOHLW (일본후생노동성)	음용수의 소독, 소독용 표백, 수영장, 목욕탕 수처리소독
KFD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에 대한 살균소독, 식품첨가물